

# 초등학생들의 또래관계와 부모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융복합적 연구 : 불안의 매개효과

장인자<sup>1</sup>, 박경남<sup>2\*</sup>

<sup>1</sup>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수료, <sup>2</sup>한세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외래교수

## A Convergence of Effects in Peer Relationship and Parental Relationship on Suicidal Idea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In-Ja Jang<sup>1</sup>, Kyung-Nam Park<sup>2\*</sup>

<sup>1</sup>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sup>2</sup>A Part-time Lecture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Hansei University

요 약 오늘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살이다. 특히 자살생각은 자살로 이어지고 연령도 낮아져 초등학생도 자살생각을 생각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또래관계와 부모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있어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273명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부모관계, 불안 및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을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불안은 또래관계와 자살생각 간에 있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들의 불안은 부모관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있어 부분매개 하고 있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해 불안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길 바란다.

주제어 : 융·복합, 또래관계, 부모관계, 불안, 자살생각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er relationships and parental relationships on suicidal idea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in the process. For this purpose, 273 students in grades 4-6 of elementary school are examined for path analysis of peer relationship, convergent parent relationship, anxiety and suicidal ideat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xie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found to be fully mediating between peer relationship and suicidal ideation. Second, the anxiety of elementary school is found to be partly mediating between parental relationship and suicidal ideation. Therefore, in order to lower the suicidal ideation of the upper grades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developing various programs to reduce anxiety factors and apply them to the practice field is desired.

Key Words : Convergence, Peer relationships, Parental relationships, Anxiety, Suicidal ideation

\*Corresponding Author : Kyung-Nam Park(pkn06@hanmail.net)

Received February 21,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April 22, 2019

Published May 28, 2019

## 1. 서론

오늘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살이다. 자살은 아동 및 청소년, 성인과 노인 등 전 연령층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이러한 자살이 연령적으로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를 증명하듯 10-14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이 한해 평균 48.3명으로 초기 청소년으로 자살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자살생각에 관한 조사결과 전체 아동 중 53.6%가 자살에 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살생각이 없었던 경우에는 한 명도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어 아동의 자살생각이 매우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1].

이러한 자살생각은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발달상의 위기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밝게 자라야 하며 또한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아갈 아동들이 자신의 삶을 파괴로 이끌 수 있어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살생각이 실제적인 자살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해볼 때, 아동들이 마음에 담아두고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자살생각을 조기에 발견해 내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2,3].

그동안의 자살생각과 관련한 연구들은 청소년이나 청장년 및 노인 등의 자살생각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학령기 아동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1].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자살생각이 저연령화가 되고 있는 추세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리사회적인 변인들을 파악하여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고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2].

인간은 환경에 의해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충분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환경변인과 개인의 내적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4]. 따라서 조사된 환경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환경 변인으로 아동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상당수 연구들이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아동학대 등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위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가족환경 변인으로는 자살생각을 하는 아동의 부모사망 및 이혼, 별거, 가족건강의 문제, 부모의 실직 등과 같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3,5]. 자살생각과 관련한 개인 내적인 심리적 특성으로는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사회적지지 등의 선행연구가 있으나[1-3], 본 연구에서는 불안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한다는 여러 연구를 볼 때[6-8], 아동의 불안도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불안을 매개변인으로 탐색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 이에 대해 밝히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환경변인의 부모자녀 관계 및 학교 환경변인의 친구관계와 심리적 특성인 불안과의 관계를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불안의 관련변인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아동기의 보다 가까운 사회적관계의 대상은 가족과 친구이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서 및 심리, 인지적인 발달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된다[9]. 가족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 나기는데 있어서 가장 가깝고 영향력 있는 사회적 관계이므로 아동기는 다른 어느 생애주기 보다 가족의 영향을 비교적 더 많이 받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 아동의 자살생각과 가족특성 요인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5]. 특히 가족의 기능은 개인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인지가 개인으로 하여금 주관적인 행복과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10]. 이와 관련하여 가족의 기능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가족 간의 관계, 특히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역기능적인 가족은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양육 경험이나 적절하지 못한 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우울이나 자살생각,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11,12].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부모 및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격리 및 소외되는 느낌과 매우 지나친 부모의 제한, 사랑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것 등이 주요한 자살생각의 원인으로 작용하며[9], 자살을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민주적이지 않거나 매우 극단적인 긴장상태, 폐쇄적인 관계로 결국 부모와 자녀 간에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이어진다고 하였다[9,13]. 즉, 부모지지가 자살생각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설명되는 연구결과로[14] 부모자녀 관계의 긍정적인 특성은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살생각을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 가족의 위험 요인을 조사한 결과 부모로부터의 지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또한 부모와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자살생각에 있어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어머니에게서

받은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특히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모색하는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 부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시기인 학령기 아동의 부모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밝히는 일은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관계는 부모나 형제, 다른 성인, 또래 등의 여러 대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또래와 맺는 관계는 스스로 자발적이며 평등하고 균형있는 권력을 가진다는 것에서 다른 관계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또래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은 아동이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며, 정서적 지원의 제공과 함께 자아개념의 발달을 돕는다[16]. 또래관계는 애정 및 관심, 흥미,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애착관계의 독특한 형태로서 그들 가운데서의 행동의 모범적인 기준이 되며, 반면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아동 청소년들의 사회 정서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화자가 되고 자신의 행동에 반응하는 칭찬과 비난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게도 되는데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갈등이나 대립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관계가 나타난다[14]. 이렇게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이 형성되지 않으면 학교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불안 및 자기비하, 우울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과 더불어 더 나아가 자살이라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다[14,17]. 반면에 긍정적인 친구관계는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가지며[18], 위험한 상황에서의 극단적인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긍정적이지 않은 친구관계는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또래 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우울과 자살생각이 증가되며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도 신체 및 심리적인 건강이 양호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19,20]. 이와 더불어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고립을 초래하게 되어 자살생각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고, 자살의 위험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매우 친구관계가 빈약하며, 특히 친구에 대한 애착이 증가할수록 자살에 대한 충고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불안은 인간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며, 매우 압박한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아동 또는 청소년기에 자주 보일 수 있는 정서 상태이다[22]. 또한 불안은 어떠한

목적과 대상이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상태로[7] 정상적인 발달과정상에서 보일 수 있는 일시적 증상일 수도 있으나[10] 개인이 주로 경험하게 되는 불안은 자신과 환경 사이에서 요구되어지는 조화를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심리, 사회 기능의 부적응을 의미한다[23].

이렇게 불안한 아동은 또래 아이들보다 친구를 원활하게 많이 사귀지 못하며, 한정된 소수의 친구만을 사귀므로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원활히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불안은 여러 가지 신체증상, 즉 피로 및 권태감이나 극심한 무력감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가솔 및 자살과 비행 등의 문제행동이나 부적응을 유발하게 된다[24]. 조사에 의하면 학교생활 부적응에 원인이 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불안은 많은 청소년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로 이러한 불안은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청소년들에게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5]. 또한 고등학생들의 불안 및 부적응과 자살생각과의 연구에서도 불안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25], 대학생들의 불안과 자살생각과의 연구에서도 불안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7]. 특히 폭력경험과 불안 및 자살 간의 연구에서 폭력에 대한 경험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불안은 청소년의 자살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임을 검증하였다[26].

이러한 연구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막막하거나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동기에 있는 초등학생도 심리 정서적인 특성의 요인인 불안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부모관계 및 또래관계는 자살생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며, 또한 부모관계 및 또래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불안이 어떻게 매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초등학생들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생의 부모관계 및 또래관계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초등학생의 부모관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셋째 초등학생의 또래관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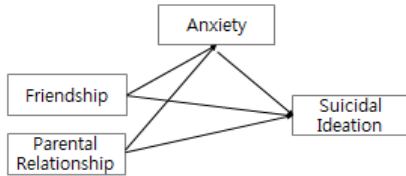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 2.2 조사대상

본 연구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서울지역의 강북과 강남 및 성남시에 소재한 일부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재학생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지는 조사자가 각 학교에 내방하여 각 반 담임선생님께 연구목적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학부모님께 연구목적과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들에 한해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무기명이고 조사에 참여하기 싫은 학생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고지하였다. 조사대상은 비확률표집인 판단표집 방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고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290부를 회수하고,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273부 활용하였다.

### 2.3 측정도구

#### 2.3.1 자살생각

본 척도는 Reynolds[27]가 개발한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를 Park[28]이 번안한 문항 5개를 사용하였다. 자살생각 척도의 문항은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한 적이 있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살생각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20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4점 ‘자주 있다.’부터 1점 ‘전혀 없다’로 이루어졌다.

#### 2.3.2 또래관계

본 자아개념척도의 하위요인 중 또래관계는 Koh[23]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7문항으로 이루어졌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을 뜻한다. 각 문항 ‘친구가 많음’ 등으로 이루어졌다. 척도의 신뢰도 값인 Cronbach’s alpha 계수는 .853로 높게 나타났다. 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5점 ‘아주 그렇다’부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졌다.

#### 2.3.3 부모관계

본 자아개념척도의 하위요인 중 자녀가 느끼는 부모관계로 Koh[29]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총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부모관계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관계가 좋다는 것을 뜻한다. 각 문항 ‘부모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냄’ 등으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68로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5점 ‘아주 그렇다’부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졌다.

#### 2.3.4 불안

이 척도는 Beck et al.[30]이 제작한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를 Seo[31]이 번안한 불안척도로 문항 구성은 ‘홍분된 느낌을 받는다’ 등 21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전혀 느끼지 않았다’ 1점에서부터 ‘심하게 느꼈다’ 4점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81인 것으로 나타났다.

### 2.4 분석방법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등학생들의 자살생각과 관계가 있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술통계 분석으로 왜도와 첨도의 통계치를 통해 정규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자살생각과 주요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넷째, 초등학생들의 또래관계 및 부모관계와 자살생각 간에 있어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으로 경로분석을 실행하였다. 다섯째, 이상치 검증을 하고 결측값은 회귀대체법으로 처리했다.

## 3. 연구결과

### 3.1 인구사회학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145명(53.1%), 여학생이 128명(46.9%)을 차지하고 있

다. 초등학생의 학년을 살펴보면 초등4학년이 재학 중인 학생은 98명(36.3%)이고, 다음으로 5학년이 89명(33.0%), 6학년이 83명(30.7%)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살펴보면 개신교가 103명(38.1%)으로 가장 많으며, 무교는 97명(35.9%), 기타는 27명(10.0%), 천주교는 22명(8.1%), 불교는 21명(7.8%)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Percentage (%)
Student's Gender	Male	145	53.1
	Female	128	46.9
School Year	Elementary 4 <sup>th</sup> grade	98	36.3
	Elementary 5 <sup>th</sup> grade	89	33.0
	Elementary 6 <sup>th</sup> grade	83	30.7
Religion	Protestant	103	38.1
	Catholic	22	8.1
	Buddhism	21	7.8
	Atheism	97	35.9
	Other	27	10.0
School Grade	Needs improvement	12	4.4
	Satisfactory	129	47.3
	Good	102	37.4
	Excellent	30	11.0
Fa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ower	52	21.8
	Bachelor	125	52.5
	Master or higher	61	25.6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ower	57	23.6
	Bachelor	134	55.4
	Master or higher	51	21.1
Economic level	Lower	10	3.7
	Middle	80	29.3
	Upper	139	50.9
	Very high	44	16.1
Family type	Parent and children	196	73.7
	Grandparent, Parent and children	30	11.3
	Other	40	16.1
Sibling relationship	Alone	49	18.3
	Brother and Sister	98	36.6
	2 Brothers	47	17.5
	2 Sisters	39	14.6
	Other	35	13.1

본인의 학교성적을 살펴보면 보통이 129명(47.3%)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잘한다는 102명(37.4%), 매우 잘한다는 30명(11.0%), 못한다는 12명(4.4%)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주관적인 성적이 대다수 보통이 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의 학력은 대졸이 125명(52.5%)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학원졸 이상 61명(25.6%), 고졸 이하 52명(21.8%)으로 나타나며, 모의 학력의 경우 대졸이 134명(55.4%)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고졸 이하 57명(23.6%), 대학원졸 이상 51명

(21.1%)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39명(50.9%)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이 80명(29.3%)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44명(16.1%)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 형태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한다고 응답하였다(73.7%). 형제관계를 살펴보면 1남 1녀가 98명(36.6%)으로 가장 많으며, 외동은 49명(18.3%), 2남은 47명(17.5%), 2녀는 39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강북(34.7%), 강남(33.3%), 성남(32.0%)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초등학생들의 자살생각, 또래관계, 부모관계, 불안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를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sd)를 분석한 결과를 해석하면, 자살생각 요인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1.258(sd=.493), 또래관계 요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3.505(sd=.844), 부모관계 요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4.388(sd=.685), 불안 요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1.504(sd=.472)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이 각각 3과 10보다 작아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273)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Friendship	1.00	5.00	3.505	.844	-.461	.053
Parent Relationship	1.00	5.00	4.388	.685	-1.547	3.119
Anxiety	1.00	3.70	1.504	.472	1.473	2.477
Suicidal Ideation	1.00	3.80	1.258	.493	2.351	5.550

### 3.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초등학생들의 또래관계, 부모관계, 불안, 자살생각 변인들 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또래관계는 부모관계( $r=.433, p<.01$ )와 정적인 상관관계로 설명되고 불안( $r=-.228, p<.01$ ) 및 자살생각( $r=-.170, p<.01$ )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확률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관계는 불안( $r=-.329, p<.01$ ) 및 자살생각( $r=-.391, p<.01$ )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확률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불안은 자살생각( $r=.464, p<.01$ )과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확률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Friendship	Parental Relationship	Anxiety	Suicidal Ideation
Friendship	1			
Parental Relationship	.433**	1		
Anxiety	-.228**	-.329**	1	
Suicidal Ideation	-.170**	-.391**	.464**	1

\*\*p<.01.

### 3.4 연구모형분석

#### 3.4.1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친구와 부모관계 및 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odel 1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학년, 학교성적,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삽입하였다. Model 2는 Model 1에 통제하고 또래관계와 부모관계 변수를 투입하여 자살생각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Model 3에서는 Model 2를 통제하고 불안 변수를 투입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독립변수 간에 유발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 값은 .10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초등학생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Model 1의 분석결과에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과 학년,

학교성적 및 경제수준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자살생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설명력은 3.6%이며, 모형의 F값은 2.433로 유의확률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Model 2에 또래관계와 부모관계 변수를 투입하자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또래관계 및 부모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모관계( $\beta=-.399, p<.001, t=-6.187$ )가 자살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래관계( $\beta=-.048, p>.05, t=-.702$ )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초등학생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자살생각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은 18.2%로서 Model 1에 비해 14.6% 증가하였고, 모형의 F값은 9.660으로 유의확률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Model 3에 불안감 변수를 투입하자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학년은 자살생각에 영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모관계( $\beta=-.269, p<.001, t=-4.396$ )는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래관계( $\beta=.002, p>.05, t=.034$ )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불안과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의 불안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beta=.408, p<.001, t=7.487$ ), 이는 확률적으로도 유의하다.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은 32.7%로서 Model 2에 비해 15.4%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불안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모형의 F값은 18.034로 유의확률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4.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n Suicidal Ideation Commitment

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t	B	$\beta$	t	B	$\beta$	t
Gender	-.080	-.083	-1.370	-.082	-.084	-1.501	-.079	-.082	-1.601
Grade	.062	.104	1.720	.063	.107	1.865	.073	.123	2.363
School grades	-.058	-.095	-1.564	-.008	-.013	-.222	-.014	-.023	-.421
Economic level	-.052	-.080	-1.316	.045	.070	1.127	.020	.031	.548
Friendship				-.027	-.048	-.702	.001	.002	.034
Parental Relationship				-.280	-.399	-6.187**	-.189	-.269	-4.396***
Anxiety							.416	.408	7.487***
F	2.433*			9.660***			18.034***		
R <sup>2</sup>	.036			.182			.327		
Adjusted R <sup>2</sup>	.021			.163			.309		
Durbin-watson				1.853					

\*p<.05, \*\*p<.01, \*\*\* p<.001, Gender(Man:1, Woman:0)

3.4.2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모형은 초등학생들의 또래관계와 부모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불안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매개효과 검증은 Baron & Kenny[32]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같이 투입하여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한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결과가 유의하게 산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1단계는 또래관계와 불안의 관계 흐름을 분석하였고, 2단계는 또래관계와 자살생각의 영향 관계를, 3단계에서는 또래관계와 불안이 자살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진행한 결과는 Table 5에 기록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또래관계와 매개변수인 불안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설명력이 5.0%이며, F값은 14.401,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또래관계( $\beta = -.225, t = -3.795$ )는  $p < .001$  수준에서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또래관계( $\beta = -.170, t = -2.840$ )는  $p < .01$  수준에서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또래관계와 매개변수인 불안을 투입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설명력이 22.0%이며, F값은 37.734,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또래관계( $\beta = -.067, t = -1.215$ )는  $p > .05$  수준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불안( $\beta = .449,$

$t = 8.098$ )은  $p < .01$  수준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불안이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Table 6에서는 부모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관계와 매개변수인 불안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설명력이 10.6%이며, F값은 32.013,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부모관계( $\beta = -.325, t = -5.658$ )는  $p < .001$  수준에서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관계( $\beta = -.391, t = -6.985$ )는  $p < .001$  수준에서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관계와 매개변수인 불안을 투입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설명력이 27.9%이며, F값은 51.816,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부모관계( $\beta = -.267, t = -4.855$ )는  $p < .001$  수준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불안( $\beta = .376, t = 6.842$ )은  $p < .001$  수준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3단계에서 부모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 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설명된다. 즉 부모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불안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함께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 값이 0.1이상, VIF(분산팽창지수)값이 모두 4보다 작은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이 검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between Friendship and Suicidal Ideation

Level	Variable	B	$\beta$	t	F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1 level	Friendship → Anxiety	-.126***	-.225	-3.795	14.401***	.050	.047
2 level	Friendship → suicidal ideation	-.099**	-.170	-2.840	8.068**	.029	.025
3 level	Friendship	-.039	-.067	-1.215	37.7340*	.220	.214
	Anxiety	.468**	.449	8.098			

\*\* $p < .01$ , \*\*\* $p < .001$

Table 6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between Parental Relationship and Suicidal Ideation

Level	Variable	B	$\beta$	t	F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1 level	Parent relationship → Anxiety	-.224***	-.325	-5.658	32.013***	.106	.102
2 level	Parent relationship → Suicidal Ideation	-.281***	-.391	-6.985	48.792***	.153	.150
3 level	Parent relationship →	-.192***	-.267	-4.855	51.816***	.279	.273
	Anxiety	.392**	.376	6.842			

\*\* $p < .01$ , \*\*\* $p < .001$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안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파악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행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초등학생의 또래관계 및 부모관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있어 불안의 매개효과 Z값은 각각 -3.474, -4.377로  $p < .001$  수준에서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불안이 매개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Sobel test statistic	p
Friendship → Anxiety → Suicidal Ideation	-3.474	.000
Parent relationship → Anxiety → Suicidal Ideation	-4.377	.000

따라서 초등학생의 또래관계와 부모관계는 불안의 경로를 통해 초등학생의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초등학생의 또래관계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나, 불안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부모관계는 자살생각에 있어 불안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불안에 의해 그 영향이 감소함을 보여 부분매개함을 검증하였다.

###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또래관계와 부모관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래관계와 부모관계, 자살생각 사이에서 불안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해보는 것이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부모관계 평균값 4.388(표준편차=.685), 또래관계 평균값 3.505(표준편차=.844), 불안 평균값 1.504(표준편차=.472), 자살생각 평균값 1.258(표준편차=.493)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의 또래관계는 부모관계 간의 관계에서( $r=.433, p < .01$ )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불안( $r=-.228, p < .01$ ) 및 자살생각( $r=-.170, p < .01$ )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초등학생의 부모관계는 불안( $r=-.329, p < .01$ ) 및 자살생각( $r=-.391, p < .01$ )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불안은 자살생각( $r=.464, p < .01$ )과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또래관계, 부모관계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또래관계, 부모관계→불안→자살생각의 3단계 검증방법 모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매개변수인 불안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한 결과 불안은 또래관계( $z=-3.474, p < .001$ ), 부모관계( $z=-4.377, p < .001$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또래관계와 부모관계는 불안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초등학생의 부모관계는 자살생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로 앞의 부분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2,9]. 따라서 부모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인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의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조속한 개입이 진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나 지역사회와 여러 복지기관 등에서의 가족생활교육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긍정적인 부모관계 및 바람직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또래관계가 소원해지고 악화되면서 결국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7,19]. 아동의 또래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들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즉 친구관계를 지원해주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의 교과과정 및 교사의 사랑과 관심, 역할극, 수련회나 캠프 등을 통해 친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초등학생의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서의 불안은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부모관계 및 또래관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있어 매개변수로서 자살생각의 중요한 설명변수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심리적인 안정 및 내면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이 초등학생의 자살생각을 예방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아동기 불안의 요소로는 학교 시험이나 신체 외모, 또래들의 따돌림이나 놀림,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의 위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불안은 자살생각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이나 학교수업, 친구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안의 요소를 제거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개입 즉 안정적인 가정환경, 부모나 교사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 등의 환경적 보호요인을 통한 개입의 중요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불안의 부정적인 정서가 완화될 수 있는 부모와 자녀



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나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에서의 심리적인 지원에 관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생의 자살생각을 낮추고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임시방편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조하에 자살예방교육의 체계적인 개입이 시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매우 경미한 자살생각이라도 사전 예방 교육을 통해 심각한 수준의 자살생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개입전략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시급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전문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학교 교사, 의료관계자 등의 자살예방에 관한 관련업무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 등이 필요해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직·간접경로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초등학생들의 자살생각은 부모관계, 불안이 개별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관계 및 또래관계는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인 불안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도 의미 있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낸 바와 같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부모관계 및 또래관계, 불안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사되었지만 다른 요인들도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성남시 및 서울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로 일반화하기엔 다소 어려운 제한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로서 부모관계 및 또래관계의 중요성과 초등학생의 불안수준을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낸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REFERENCES

- [1] J. S. Lim, B. S. Gu & O. S. Cho. (2018) The Effect of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in the Times of Convergence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135-143.
- [2] S. Park & S. B. Moon. (2014). A Structural Analysis of School-aged Children's Suicide Ideation and Related Variables.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2), 75-86.
- [3] S. S. Kim & J. H. Jeong. (2015). The Effects of Parent's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n the Children's Suicidal Ideation. *The Korea Contents Society*, 16(2), 257-267.
- [4] Y. H. Jang & J. H. Song. (2011). Influence of the Experience of the Childhood abuse on the Self-esteem and Suicidal thought in the Adolescence Period. *Institute Policy Science*, 20(2), 80-102.
- [5] J. H. Hur & J. O. Lee. (2003). Family Risk Factors for Child Suicidal Ideation.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1(2), 85-95.
- [6] M. S. Choi.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llying and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 Mediators of Depression, Anxiety, Dysfunctional Impulsivity, and Self-Estee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 [7] M. Jeong. (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College Students: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7(5), 519-541.
- [8] H. N. Kim & Y. S. Choi. (2013). Study on the Control Effect of Christianity in Relation to Adolescents' Depression/Anxiety and Suicidal Idea. *Journal of Church Social Work*, 24, 149-177.
- [9] E. Seo. (2009). *The Effects of the Degree of Intimacy with Parents and Friends and Media Message on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0] Y. J. Hong & M. K. Lee. (2014). Effect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on Anxiety, Interpersonal Sensitivity and Depression: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1(10), 445-474.
- [11] H. J. Sin, I. J. Chung, S. A. Lee, H. Y. Lee & J. Y. Park. (2014).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Suicide Plans and Suicide Attempts in Adolescence.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7(1), 25-50.
- [12] S. N. Seo, S. G. Lee & S. H. Lim. (2012).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style,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0(8), 327-333.
- [13] M. Y. Nam & O. H. Kweon. (2017). The Convergence over Effect of Adolescents'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Bullyingon Victim on Suicidal Ide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s- Children Communic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29-138.
- [14] M. Y. Lee. (2012). *The Effects of Perceived Peer-Relationship,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E*

- steem on Suicide Ide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5] S. A. Kim. (2009). Effects of Childhood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on Middle School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3), 5-27.
- [16] O. J. Lim.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Anxiety/Depression and Friendship Characteristic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7] O. H. Sin & S.Y. Park. (2016). Effects of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on Suicidal Ideation: Examination of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Welfare*, 18(1), 235-259.
- [18] L. H. Lee & Y. Z. Yang. (2018).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t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37-44..
- [19] S. Y. Kim & S. H. Hong. (2012). Identifying and Predicting Trajectories of Latent Classes i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Studies on Korean Youth*, 23(1), 251-275.
- [20] Y. Z. Kim & C. S. Lee.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2(6), 539-547.
- [21] O. K. Kim & J. S. Lee. (2008). Effects of Abusive Experiences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hame-proneness and Friendships.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6), 123-134.
- [22] H. S. Song & Y. M. Baek. (2013). Effects of Depression-Anxiety on School Maladjustment in Economically Poor Adolescents : The Moderating Effects of Material and Emotional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2), 23-42.
- [23] M. K. Choi.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Parental Control, and Adolescents' Anxiety.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3(5), 163-180.
- [24] J. S. Jung & K. S. Kim. (2008). A Case of Art Therapy on a Group of Children Maladaptive at School to Improve Their Self-Esteem and to Treat Their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4(1), 125-150.
- [25] M. S. Choi.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llying and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 Mediators of Depression, Anxiety, Dysfunctional Impulsivity, and Self-Estee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 [26] H. N. Kim & Y. S. Choi. (2013). Study on the Control Effect of Christianity in Relation to Adolescents' Depression/Anxiety and Suicidal Idea. *Journal of Church Social Work*. 24, 149-177.
- [27] W. M. Reynolds. (1988). SIQ,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7-30.
- [28] B. K. Park.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6(3), 505-522.
- [29] J. Y. Koh. (20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Concept Scales*. A Dissertation for the Doctor of Education.
- [30] A. T. Beck, G Emery & R. L. Greenberg.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31] S. G. Seo. (1996).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repancy and Depression or Anxiety with Consideration of Self-Focused Attention, Actual Self-Concept, and Self-Guides Preference*. A Study on the Master's Degre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32]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7.

## 장 인 자(In-Ja Jang)

[정회원]



- 1991년 2월 : 제주대학교 물리학과(이학사)
- 2007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11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이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관심분야 : 다문화, 가족복지, 노인복지
- E-Mail : hera8705@naver.com

## 박경남(Kyung, Nam Park)

[정회원]



- 2015년 2월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 졸업(사회복지박사)
- 2015년 9월~ 현재 : 한세대학교 외래교수
- 관심분야 : 가족, 청소년, 부부, 노인
- E-Mail : pkn06@hanmail.net